

SUMMARY

Intro) 철학에서 배우는 리더십과 인생론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철학자들의 질문과 사유, 그리고 그들 나름의 결론을 통해 리더십과 우리의 '삶', 그 자체에 대해 논해보자.

Body) 철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우는가

1) 플라톤 - 직원들에게 이상을 제시하라

- 이데아의 세계를 이상으로 삼아 사람들을 설득한 플라톤
- 조직의 리더는 직원들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상을 제시해야함

2) 데카르트 - 경영함에 있어 끊임없이 의심하라

- 당연한 것들조차 끊임없이 의심한 데카르트
-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에 대한 이해가 갖춰져 있는 리더가 바람직한 리더
- 확실한 것을 얻으려면 불확실한 것을 스스로 끌어들이야 함

3) 한비자 - 엄격하게 통제하라

- 왕이 국민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덕이 아니라 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법가의 대표주자 한비자
- 사람은 의가 아니라 이익에 따라서 움직임.
- 금전적 보상(외적보상)은 동기부여에 한계가 있음
- 부정적 피드백은 필수요건

4) 아리스토텔레스 - '평생 학습하는 삶'과 '성취'는 행복을 가져온다

-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생각한 아리스토텔레스
- 인생의 목적이 배움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루할 틈이 없음
- 행복은 소유가 아닌 성취에서 옴
- 행복하면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일하면 성과가 옴

5) 니체 - 자기자신에게서 해결책을 찾아라

- 삶에 대한 긍정적 찬양은 우리 자신을 극복하는 데서 나온다고 말한 니체
- 과거로부터 오는 교훈을 얻어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야 함
-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음

6) 소크라테스 - 무지를 깨닫고 질문하라

-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배움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믿은 소크라테스
-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음
-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나 모르면서 질문하지 않는 것은 죄

Outro) 경영학에서 인문학이란?

어제 한 일 오늘 반복하고, 전임자가 한 일을 생각없이 따라 하기만 해서는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뒤쳐지고 말 것이다. 철학을 포함한 인문학이 죽어가는 시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인문학은 결코 필요 없는 학문일까.

WORD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델포이 신탁을 계기로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어느날 카이레폰이라는 사람이 델포이 신에게 아테네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은 소크라테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신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현명한 사람인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크라테스 자신은 스스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모든다는 것을 알 때만 무엇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스스로 아는 것이 없다는 무지를 전제한 후 대화를 통해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잘못된 주장을 맞닥뜨렸을 때 그 잘못된 주장을 직접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동의할 만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대화를 이끌어 갑니다. 대화 상대자는 소크라테스의 의견에 동의해 나가는 와중에 자신의 원래 주장을 부정하게 되거나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 청소년을 위한 서양철학사 -

산파술

: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되풀이함으로써 진리에 가까워진다고 믿었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다. 이 방법은 상대방 스스로 답을 찾아내도록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출산을 돕는 산파에 빗대어 ‘산파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곁에 두고 읽는 서양철학사 -

소피스트

: 인간에 비추어 볼 때 지식이란 아주 상대적인 것입니다. 프로타고라스에게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준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재하는 것의 척도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의 척도입니다. 결국 모든 지식, 즉 진리까지도 인간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소피스트들의 성향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개인주의와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 청소년을 위한 서양철학사 -

플라톤

플라톤은 세계를 둘로 나누어 봅니다. 첫번째 세계는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현상의 세계, 감각사물의 세계이고, 두번째 세계는 정신의 사유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이념의 세계입니다. 이 이념의 세계는 근원적인 형태의 세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현실의 감각적 세계를 있게 하는 존재의 근원입니다. 모든 현상이 가장 완전한 자신의 ‘원형’, 즉 원래의 형태를 가지는데 그것을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부릅니다.

‘국가론’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는 플라톤의 철학에 아주 잘 표현해 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

유는 인간의 상황을 동굴 속 죄수에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믿고 있는 감각적 세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동굴 속의 그림자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몸을 돌려 동굴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영혼(정신)이 어둠을 떠나 빛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즉 영혼이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변화와 허상으로 가득한 감각의 세계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청소년을 위한 서양철학사 -

이데아

: 이데아는 플라톤 철학의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 원래 '사물의 모양이나 형태'를 뜻하는 단어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양'은 눈에 보이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눈을 통해 통찰되는 사물의 참모습, 사물의 '원형'을 가리킨다. 감각을 통해 포착되는 사물의 형태는 변형될 수 있지만 마음을 통해 통찰되는 이데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존재인 것이다.

- 곁에 두고 읽는 서양철학사 -

아리스토텔레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변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변화들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질료란 형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료가 아직 형상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언젠가 형상으로 완성될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질료의 변화 가능성을 가능태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질료가 책상이나 옷장의 형상을 비로소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가능태가 아니라 현실태입니다. 질료가 비로소 형상으로 실현된 것이지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모든 변화는 가능태에서 현실태로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을 염두에 둔 사유를 '목적론'이라고 합니다. 모든 질료는 목적을 향하여 변화하는 끊임없이 운동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계속 다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운동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끊임없는 운동 속에 있는 세계가 궁극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고 믿었지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단순히 만족과 쾌락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행복이란 어떤 물질적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 청소년을 위한 서양철학사 -

질료인

: 그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형상인

: 그것은 무엇인가?

작용인

: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목적인

: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 지는가?

- 청소년을 위한 서양철학사 -

데카르트

데카르트가 회의주의에서 받아들인 것은 방법으로서의 회의였습니다. 그는 회의의 방법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진리'에 도달하고자 했으니까요. 데카르트는 철저히 의심합니다. 그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히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우선 그는 우리의 감각의 문제를 삼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은 실제 확실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감각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결국 데카르트는 우리가 이전에 '참'이라고 믿었던 것 중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 청소년을 위한 서양철학사 -

방법적 회의

: 모든 것을 의심하여 결국은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아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철학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방법을 바로 '방법적 회의'라고 합니다. 데카르트는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닌, 무엇인가 불변의 진리를 발견해 내기 위해 의심을 방법으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 청소년을 위한 서양철학사 -

-

니체

니체는 서구 유럽사회를 지배하는 기독교와 도덕 체계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따라야하는 절대적인 도덕 체계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인간을 하나의 보편적인 규칙으로 묶아매려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생명력을 말살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도덕의 잣대를 마련한 것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인간의 본성을 왜곡함으로써 인간을 약하게 만들고 그 삶을 변변치 못한 것으로 추락시켰다는 것이 니체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적 윤리는 '주인의 도덕'을 시기하여 이에 대항하는 '노예의 도덕'입니다.

비겁자의 도덕에서 비롯된 도덕적 윤리는 결코 인간성을 특징짓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특징짓는 것은 자신을 개선하고 환경을 지배하려는 의지인데, 니체는 이러한 의지를 '권력예의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모든 존재의 가장 내적인 본질로서 자기를 실현하고 자신의 환경을 지배하여 더욱 강해지고 성장하려는 가장 근원적인 힘입니다.

- 청소년을 위한 서양철학사 -

관점주의

: 니체에 따르면 세계란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기술이나 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여 해석하는 세계이다. 따라서 그에게 진리 그 자체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말하는 소위 진리란 세계에 대한 인간의 하나의 입장일 뿐이다. 그는 세계의 본질 자체를 객관적이고 초월적인 언어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 역시 인간의 이성적 사유에 의해 생성 변화하는 세계에 대해 붙여놓은 이름이나 기호에 불과할 뿐 진리 그 자체는 아니라고 본다. 니체는 세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는 관점적 평가나 해석에 다름이 아니며, 인간의 향상은 이러한 관점의 협소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과 인식의 지평을 끊임없이 열어가는데 있다고 본다.

- 니체와 텍스트 해석, 그리고 철학자료 - 삶의 텍스트로서 체계 : 관점주의와 해석 -

한비자

한비자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도 군주를 위해 선을 완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적으며, 대다수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이런 대중을 통치하려면 법은 인간의 선의에 조금도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비자는 법에서 우연성과 도덕성 등의 요소들을 모두 제외시키려 했습니다. 이때 법은 모든 신화와 백성에 대해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즉 규정된 넉넉한 상으로 이익을 주는 동시에, 정해진 중벌을 통해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만이 도를 행하게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법을 통하여 백성들은 해야 할 행동과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 청소년을 위한 동양철학사 -

신상필벌(信賞必罰 : 믿을 신, 상줄 상, 반드시 필, 벌할 벌)

: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죄를 범한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줌.

- 고사성어랑 일촌 맺기 -

ISSUE

대학은 인문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현재 많은 대학들은 취업률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인문대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학문과 진리를 탐구해야 하는 대학의 방향성은 이대로 문제가 없는가? 대학이 인문학을 대하는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또한 자신이 다니는 (혹은 다녔던) 대학에서는 어떠한 방향성을 추구했는가에 대해서도 얘기해보자.

■ 소개

경희대학교는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역할과 목적을 재확인하고 교양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1년도부터 한층 강화된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교양교육의 전범이 되고자 하는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양교육은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중핵교과를 신설하고 시민교육과 사회봉사를 강화하였으며, 주제 영역별 배분인수제를 도입하여 교양교육의 내용을 전면 재편하였습니다.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의 구체적인 지향점은 탐구 활동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 합리적 설명의 능력인 과학적 사고, 공감의 공동체 가치를 인지하는 봉사정신, 지구사회의 공통 문제를 풀 수 있는 세계시민적 역량 그리고 사회적 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문화적 능력의 함양입니다.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humanitas colleage) -

후마니타스 Humanitas

로마 철학자 키케로가 인간의 인간다움, 사람의 사람다움, 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말. '무엇이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담겨 있다. 경희대는 그 의미를 재정의했다. 더 높은 수준을 위해 자신을 부단히 변모시키고 재발명해 나가는 인간,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 문명을 성찰하고 정의로운 문명을 모색하는 인간으로 뜻을 구체화 했다. 이를 철학으로 삼아 만든 혁신적 교양교육이 후마니타스칼리지다. 학생을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으로 만드는게 목적이다. -경희대-

기업은 인문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2)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인문계 기피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에게 인문학을 전공한 학부생은 필요가 없는 것인가? 인문학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기업이 직원들을 채용하는 방식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대기업은 왜 인문계 대졸자 채용을 기피할까

인문계 채용 갈수록 줄어, 삼성은 85%가 이공계...지방대 문과출신 취업, 최악의 상황 [2015.02.27 비즈니스포스트]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인원도 지난해보다 10% 정도 줄어든 것으로 관측된다. 인원이 줄어드는 만큼 취업관문을 통과하기까지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인문계 출신 취업은 더욱 암울하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 출신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교육부가 밝힌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졸업생의 취업률은 59.1%로 절반을 조금 넘었다. 이 수치는 대학원 진학자, 군 입대자 등을 제외한 것이다. 2013년 2월과 지난해 8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3개 대학 인문사회계열 졸업생 3745명 가운데 취업자 수는 1701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대학 인문계열 졸업생의 취업률은 1995년 62.6%에서 지난해 45.9%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반면 지난해 공학계열 졸업생의 취업률은 66.9%로 인문계열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기업들의 이공계 선호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문과 비율이 높은 여학생 취업률은 참담한 수준이다. 여대 문과 출신의 한 취업준비생은 “여성, 인문계 출신은 취업생태계의 최하위층”이라며 “최고의 스펙은 남자일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지방대 인문계 출신의 취업성적표는 초라하다. 지방 국립대 인문사회계열의 취업률은 10~20%대에 불과하다. 충남대 철학과는 지난해 졸업생 취업률이 9.1%에 그쳤다. 충북대 국어국문학과는 18.8%, 전북대 정치외교학과는 18.2%,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는 14.3%, 강원대 국문과는 17.9%로 취업이 고사직전이다. 대학가에 '인구론'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인문계 졸업생의 90%가 논다는 것을 빗댄 말이다. 지방대 '전.화.기(전자, 화학, 기계공학과)'가 서울에 있는 대학의 '문.사.철(문학, 사학, 철학)'보다 낫다는 것도 이제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인문계에서 취업률이 높았던 상경계마저 최근 들어 몸값이 떨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인문계 출신 채용 기피의 원인을 대학 교육으로 돌린다. 대학교육이 현장과 너무 괴리돼 있어 실제 직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대학들도 할 말은 있다. 기업들이 인문학의 특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입사원을 뽑아 기업의 업무에 맞게 재교육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떠안으려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한 대학교수는 “이공계 인재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당장은 힘을 발휘할 수 있으나 장기적 안목에서 인문계 출신과 균형을 맞춰야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이공계 쏠림현상, 인문계 확대현상이 깊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